

2023-05-30 (2023-19호)

05월 22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MSCI 리밸런싱 등 외인 주식 수급 주목... 무역적자 추세도 관심

서울, 5월3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여파를 주시하는 가운데 반도체 주가 강세 지속 여부를 비롯해 외인 주식 관련 수급 따라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40원이다.

미국의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오는 31일 의회는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의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은 이에 따른 안도감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주 후반 미국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달러는 다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전주 발표된 근원 PCE 물가지표 결과는 연준 긴축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6월 연준 회의에 앞서 고용지표를 확인하고자 심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 4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비 4.7% 올라 3월 4.6%보다 확대됐다.

최근 원화와 위안화와의 비동조화 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는 위안 약세 흐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주중에 나올 중국 제조업 지표 결과에 따른 위안과 중국 증시 반응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속 외인들이 국내 반도체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인다면 원화의 상대적 강세 흐름은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이달 마지막 거래일에는 MSCI 5월 정기 리뷰에 따른 리밸런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 리뷰에 따르면 EM지수 내 한국 비중이 감소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 리밸런싱 당일 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양방향 모두 변동성이 커질 리스크를 열어둬야할 듯하다.

한편, 5월 한국 수출입 잠정치와 함께 외환수급 바로미터인 무역수지 결과가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국회에서 5월까지 무역수지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4월 산업활동동향, 5월 소비자물가, 1분기 GDP(잠정치) 등도 나올 예정이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30일(화)

-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12:00)
- 한국은행: 2023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금융감독원: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12:00)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14:00)
- 한국은행: 2023년 6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한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배포시)

5월31일(수)

- 통계청: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기획재정부: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한국은행: 2023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금융감독원: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14:00)

6월1일(목)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BOK 국제컨퍼런스 (09:00)
- 금융감독원: 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11: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11:30)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2:00)
- 금융감독원: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2:00)
-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6월2일(금)

- 통계청: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 한국은행: 2021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2년 국민계정(잠정) (08: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08:00)
- 기획재정부: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5월3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5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4월		2.8%
5월30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4월	20.%	2.5%
5월30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4월		2.9%
5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5월		0.54
5월30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5월		99.3
5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5월	-17.4	-17.4
5월30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지수	3월		394.8
5월30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MM	3월		0.1%
5월30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5월	100.0	101.3
5월30일	23:30	미국	델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5월		-23.40
5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4월		1.1%
5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4월		7.2%
5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5월		49.2
5월31일	10:30	중국	공식 종합 PMI	5월		54.4
5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5월		56.4
5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5월		35.4
5월31일	14:00	일본	건설주문 YY	4월		-4.1%
5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4월		-3.2%
5월3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26일 주간		205.0
5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5월	47.0	48.6
6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5월		1,265.4B
6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5월		50.8
6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	5월		49.5
6월1일	18:00	유로존	CPI NSA	5월		123.16
6월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4월	6.5%	6.5%
6월1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5월		66.995k
6월1일	21:15	미국	ADP 전미고용보고서	5월		296k
6월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22일 주간		229k
6월1일	21:30	미국	생산성 수정치	1분기	-2.7%	-2.7%
6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5월		48.5
6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4월	0.1%	0.3%
6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5월	47.0	47.1
6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5월		3.280M
6월2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5월	180k	253k
6월2일	21:30	미국	실업률	5월	3.5%	3.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30일(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통화정책 전망 웨비나 좌담회 참석 (31일 오전 2시)

5월31일(수)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연준이 듣는다" 화상 행사 개·폐회사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 참석 (1일 오전 2시30분)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이사, 제 22회 연례 금융분야 정책 과제 국제 컨퍼런스서 화상 연설 (1일 오전 2시30분)

6월1일(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2023 독일 저축은행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6시30분)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NABE 통화정책 전망 웨비나서 연설 (2일 오전 2시)

6월2일(금)

- ⊙ 휴장국가: 싱가포르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미국 고용지표

오는 6월2일 발표될 미국 5월 고용지표가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견실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초래할 만큼 과열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8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4월에는 25만 3000명으로 증가세가 가속화하고 임금도 견실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고용지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연준의 6월 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 ECB VS 시장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모드 지속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시장은 추가 인상 베팅을 축소했고, 성장 약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전망을 재고해야 하는 것은 트레이더들이다. 유로존 기업 활동은 여전히 견실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5% 위에 머물고 있으며 임금 상승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5월 유로존 물가지표와 각국의 경제지표는 금리 고점 논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HSBC는 ECB의 예금금리가 현재의 3.25%보다 높은 4%로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영국의 4월 인플레이션율은 예상보다 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바 있다.

### ⊙ 중국 경제지표

이번 주 중국에서는 공급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는데, 고전하고 있는 경제가 반등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 인플레이션에서 소매판매에 이르기까지 최근 지표는 내수가 부진함을 보여줬다.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근 판매액이 10년 만의 최대치로 늘어난 복권뿐인 듯하다.

한편 은행간 레포시장의 움직임은 트레이더들이 중국인민은행의 부양책이 곧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포스트 코로나 붐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된 것뿐 아니라 미국과의 기술 분쟁이 악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방의 불편함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이유다.

### ⊙ 튀르키예 경제의 앞날

28일 치러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전통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 혼란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 성공에 리라 가치는 29일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라 가치는 연초 대비 7% 이상, 지난 10년간 90% 이상 절하됐다.

그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 년간 이어진 경제 실정으로 4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44%에 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인플레이션으로 꼽은 만큼 그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심거리다.

#### ⊙ AI 관련주 주가 급등

인공지능(AI)이 대세로 떠올랐다. AI 반도체업체 엔비디아는 낙관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한 뒤 주가가 하루 만에 25%나 급등했다.

AI 테마는 지난해 챗GPT가 공개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AI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지,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업종을 창출할지, 또 AI가 어떻게 돈을 벌지가 관심거리다.

AI관련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닷컴 버블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美 의원, 中 반도체기업 CXMT 제재 요구... “韓 기업 中서 마이크론 빈자리 채워선 안 돼”

워싱턴, 5월24일 (로이터) -

미국 상무부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역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주 초반 중국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갤러거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무부가 CXMT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즉시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상무부는 "중국에 있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을 대신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관련 발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